

민주당의 남존여비 뒤끝



스카이 View

오우한
정치사회부장

요즘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앞 다퉈 여성 중용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상 고대·중세만도 못한 철 지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18-19세기 청나라 여성인 정일수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적 두목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비록 도적이었지만 여성 대상 범죄를 엄금하는 등 무분별한 양민학살을 금지했다. 당시 청나라는 여성이라고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대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정일수의 능력을 사실상 존중하고 인정했다.

1775년생인 정일수는 당초 광동성의 집창촌 출신이었다. 해적 정일의 첩이 된 그는 1807년 남편이 사망하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하였던 장보자와 함께 우두머리 자리를 꿰차게 됐다. 정일수가 거느린 병력은 무려 5만명이 넘었으며, 선단은 1000척 이상에 이르렀다. 그들의 주요 타깃은 영국·포르투갈 등의 상선이었다.

해적이 되기 전 밀바다 인생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정일수는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특히 성범죄가 발각될 시 부하들을 극형에 처했으며 때문에 비록 포로가 됐다 해도 여성들은 정조에 대한 위협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됐다. 다만 환경이 이렇다 보니 '남성'이 해적의 '성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일도 있었다. 정일수의 포로가 된 남성들은 '신의 뜻에 반(反)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정일수는 해전에서 뛰어난 용병술을 보였다. 그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으며, 궁지에 몰린 영국·포르투갈은 청나라와 함께 1810년 해적 소탕을 위한 연합군대를 구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가경제는 "어디 여자가 감히"라며 특별히 나서는 대신 대민범죄를 자제한 점을 참작하고 정일수의 능력을 높이 사 사면을 제안했다고 한다.

협상에 응한 정일수는 조직을 해산하고서 그동안 벌어들인 금은보화를 황제 승인 하에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장보자와 정식으로 결혼해 득남한 그는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장을 경영하면서 손주까지 본 끝에 천수를 누린 뒤 1844년 69세를 일기로 편안히 눈을 감았다.

아울러 16-17세기 명나라 여성인 진양옥은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관직을 제수 받은 케이스다. 명사(明史)열전 등에 의하면 소수민족 묘족 출신인 진

양옥은 만력 원년인 1573년 3남1녀 중 셋째로 태어나 학문·무예를 연마했다. 20세에 석주선사 마천승과 혼인한 진양옥은 명말청초(明末清初)의 혼란기를 틈타 각지에서 도적이 발흥하자 남편과 함께 출병해 전장에 몸소 뛰어든다.

마천승의 병력은 3000명, 진양옥의 병마는 500명이었으며 특히 긴 창을 쓰는 백간병(白杆兵)이라는 휘하 정예군이 유명했다. 진양옥은 후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화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관직·병력을 이어받아 도적 600명과 수괴 동산호의 목을 일거에 베기도 했다. 그의 혁혁한 전공에 크게 감탄한 송정제는 여자라고 깔보는 대신 술·비단 및 네 수의 시(詩)를 하사해 공을 치하했다.

이와 함께 7세기 당나라 여성 평양공주는 부친인 당고조 이연이 수나라 타도를 위해 거병하자 직접 군사를 모병해 지원한 호걸로 유명하다. 구당서(舊唐書) 등에 의하면 이연의 셋째 딸로 태어난 그는 시소라는 인물에게 시집간 뒤 수나라 수도 장안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등 당초 평범한 인생을 영위했다.

그러나 수양제의 폭정으로 민심이 들끓고 부친도 당국공(唐國公) 신분으로 북방 태원에서 봉기하면서 삶이 확 달라졌다. "내 걱정 말고 아버님께 합류하라"며 남편을 전송한 평양공주는 장안을 탈출한 뒤 가산을 털어 군사를 모았다. 하반인이라는 도적이 총관을 자칭하자 아군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이종문·상

선지·구사리 등 다른 민병대도 줄줄이 평양공주에게 복속했다.

평양공주는 나아가 대민약탈을 엄금하는 등 군율을 잡아 나갔으며 오라비니 이세민과 합류한 뒤 남편과 함께 나라한 장안을 평정했다. 평양공주의 친위대는 전원 여성이었으며 남자군(娘子軍)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연·이세민은 그런 평양공주를 나무라는 대신 건국 후 다른 공주들의 배가 넘는 하사품을 내리는 등 특별히 우대하고 존중했다.

1996년생 여성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눈길을 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남존여비' 구설수에 올랐다. 설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향해 "얼굴 보고 싶으니 마스크 내려 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은 또 투기 등 의혹의 인물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박위원장 주장이 무색하게 보란 듯이 송영길·박주민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방선거 후보로 접선했다.

급기야 박지현 위원장의 입에서는 "당의 반상·쇄신이 가능한지 깊은 고민을 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정일수·진양옥·평양공주 등 '여풍당당' 기조를 적극 수용했던 역대 고대·중세 왕조와 비교할 때 민주당이 21세기에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여성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jhoh@skyedaily.com

데일리 Talk

주먹보다 무서운 걸 몰랐던 윌 스미스



임한상
국제문화부 기자

올해 오스카(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미국 배우 윌 스미스(54)가 향후 10년간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받았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윌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대로 뛰쳐 올라가 이날 장편 다큐멘터리상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 크리스 록(57)의 뺨을 느닷없이 가격했다. 록은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핀켓의 삭발한 헤어스타일을 소재로 농담했는데, 이 농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오른 스미스가 무대 위로 돌진해 록의 뺨을 때린 것이다.

스미스는 그후에도 자리로 돌아가 "단지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억울해 하는 록을 향해 "내 아내의 이

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까지 질렀다.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가 록의 뺨을 때리기까지는 마치 일종의 설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스미스 정도의 베테랑이라면 아무리 흥분한다고 해도 TV 생중계 도중 욕설은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는 곧바로 심각한 방송사고임이 드러났다.

스미스의 부인 제이다는 2018년부터 자가면역 질환으로 탈모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으로 인해 부득이 머리를 삭발한 것이었음에도 록이 탈모로 속앓이를 하는 제이다를 거론하며 공개석상에서 "지 아이 제인 2편"에서 빨리 보고 싶다"라는 농담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1997년 리틀리 스콧이 감독하고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영화 '지 아이 제인'은 여성 주인공이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 실' 양성과정에서 임고해 머리를 삭발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빗대 농담을 한 것이다.

'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자매를 키워 낸 아버지를 그린 영화 '킹 리처드'로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쥔 스미스는 폭행 사건 이후 한 시간 뒤 다시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 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고 사건은 일파만파

로 커져만 갔다.

논란이 계속되자 스미스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 일의 일부지만, 아내의 건강 상태에 대한 농담은 참기 어려워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자책했다. 스미스는 이어 "내가 우리 모두의 멋진 여정을 얼룩지게 만든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나는 아직 미완성인 사람"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카데미회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스미스의 이번 오스카 폭행 사건은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영화시상식에서 영화 관련 농담에 대해 폭력으로 응수한 스미스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동에 나선 스미스가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옹호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유명 여성 래퍼인 니키 미나즈는 스미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다. 그는 "우리는 사랑하는 여자가 단지 하찮은 농담의 대상이 된 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남자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목격했다"며 "어떤 남자라도 그 순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농담을 보겠지만 그는 아내의 아픔

을 본 것이다"라는 시(詩)적인 메시지를 적었다.

아울러 생방송 시상식 중 스미스에게 세차게 뺨을 맞고도 이에 격분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임무를 완수한 코미디언 록의 행동도 매우 인상깊었다. 그는 분노에 찬 스미스를 향해 "지 아이 제인" 영화에서 비롯된 농담이었는데 텔레비전 역사상 최고의 밤을 만들어 줬다"며 재치있는 유머로 슬쩍 넘기며 시상을 이어갔다.

이날 록은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썸머 오브 솔'의 감독 아미르 케스트르브 톱슨에게 트로피를 건넨 뒤 조용히 시상식 자리를 떠났으며,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주변의 경찰 신고 권유도 거절하는 금도를 선보였다.

한편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콜베어는 자신의 쇼에서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스미스의 행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코미디언을 손으로 가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코미디언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싶다면 웃어주지 말라(Don't laugh)"는 명언을 남겼다. 주먹은 피할 수 있지만 무시나 외면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철학이 담긴 한마디였다.

hsrn@skyedaily.com

SkyeDaily

사장·발행인 조민호 편집인·주필 조정진
인쇄인 채인 임체청 편집국장 김동원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1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
TEL 02-522-6595-6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www.segistar.co.kr

광고상담실 : 02-538-9388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정직합니다!

- 정직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약속합니다
- 어떠한 편법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 세기보청기는 전국 세기보청기 대리점에서만 취급합니다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전국점망**
- 서울 중로2가점(금강제약 옆) 02)2276-0587-9, 02)733-0220 /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 마포점(안리동 고개 신한은행 근처) 02)706-0303 /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옆) 032)421-2288 / 수원점(남문 우리은행 옆) 031)246-5110 / 부천점(롯데백화점 중동점 옆) 032)329-4400 /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옆) 031)821-6655 / 안양점(백산소방·2001 아울렛 옆) 031)469-0110-1 / 용인점(용인내거리) 031)336-1090 / 오산점(오산역 옆) 031)378-4183 / 구리, 남양주점(구리동기소 옆) 031)593-9903 /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 울산울산(공업탑로터리)052)268-2283 / 경남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055)745-9870 / 창원점(창원역 앞, 동명빌딩 5층) 055)273-8242 / 대구 동인점(동인내거리) 053)425-4440 / 삼척점(삼척내거리) 053)426-1511 /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 053)425-7575 / 경북 포항점(육거리) 054)244-5110 / 안동점(구 안동농고내거리) 054)859-2248 / 광주 광주점(근남로 4가역 사거리)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063)252-5728 / 군산점(구.시청정문 옆) 063)446-0198 / 익산점(북부시장내거리) 063)838-5600 / 남원점(시창내거리) 063)632-2626 / 대전 대전점(구.충남도청 옆) 042)254-5110 / 대전점(대전역 앞) 042)255-4900 /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041)553-2888 / 광주점(공주큰사거리) 041)852-5110 / 충북 청주점(현.홍플러스구.속리산고속맞은편) 043)222-1177-8 / 충청점(삼원로터리) 043)852-1414 /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033)647-0588 / 춘천점(팔호광장 옆) 033)253-5110 /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064)753-4358